

4주차

# 조선 왕의 즉위식과 그 의미

소진형

## 학습목차

### 학습목표

### 학습내용

#### 01. 조선 왕의 즉위식

- 도입
- 태조의 즉위식
- 왕위는 혈통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02. 왕위의 계승 방법 1: 수선(受禪)

- 수선(受禪)
- 맏아들이 꼭 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서양 중세의 즉위식과 동양의 즉위식의 차이

#### 03. 왕위의 계승 방법 2: 사위(嗣位)

- 흥례로서의 즉위식
- 사위를 통해 즉위한 왕들

#### 04. 왕위의 계승 방법 3: 반정(反正)

- 중종반정
- 인조반정

#### 05. 왕의 즉위 의식

- 수선의 즉위식
- 사위의 즉위식
- 반정의 즉위식

## 2차시

# 왕위의 계승 방법 1: 수선(受禪)

## 학습목차

### 학습목표

- 왕위 계승방법 중 수선의 방식과 의미를 배운다.

### 학습내용

- 수선(受禪)
- 맏아들이 꼭 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서양 중세의 즉위식과 동양의 즉위식의 차이

# 수선(受禪)

# 조선의 왕위계승방법

---

- 수선
- 사위
- 반정

# 조선의 왕위계승방법

---

- 수선

# 선양과 수선

## ■ 선양

- 고대 왕들이 자기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뛰어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선양으로 왕위를  
이은 순임금



# 선양과 수선

## ■ 수선

- 선왕이 살아 있을 때 선왕으로부터 지명 받은 왕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



선양으로 왕위를  
이은 순임금

# 수선을 통해

## 왕위에 오른 조선의 왕

---

- 제2대 정종
- 제3대 태종
- 제4대 세종
- 제7대 세조
- 제8대 예종

# 선양과 수선

---

- 수선을 통해 왕위에 오른 왕들 중에는
  - 적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 적장자보다 뛰어난 점이 강조되어야
  - 왕위계승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었음

## 사례

# 제1대 태조 → 제2대 정종

---

- 정종: 사실상 적장자
- 정종의 유덕한 성품, 행실이 강조됨

사례

## 제2대 정종 → 제3대 태종

---

- ‘태종의 자질이 유교적 통치자에 적합하다’ 강조

## 사례

# 제3대 태종 → 제4대 세종

---

- 태종이 자신의 막내 아들인 세종에게 선위하는 과정
  - 왕위가 유덕자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난 것

## 사례

# 제3대 태종 → 제4대 세종

---

- 양녕대군의 문제
  - 유교적 관점에서 적합한 왕자가 아니라는 판단  
(eg. 행동의 자유분방함, 예의법도를 싫어함,  
공부를 하지 않음)

# 가부장적 질서의 유효성

---

-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전근대에서 가부장적 사회질서는  
어떤 면에서 **비용을 덜 들이고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
- 능력본위의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공정한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체제를 사회가 갖고 있는지가 문제시됨



# 가부장적 질서의 유효성

---

- 경쟁사회에서는 경쟁이 투쟁이나 폭력으로 전화되지 않도록  
통제되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유교적 가부장제는 적장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함

# 가부장적 질서의 유효성

---

- 왕은 이런 질서의 꼭대기에 있음
  - 따라서 적장자의 위상을 갖는 것이 통치에 가장 안정적
- 그러나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은 가정을 통치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

**맡아들이 꼭 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원자와 세자의 구분

- 원자란 맏아들이란 칭호라, 반드시 봉해야 할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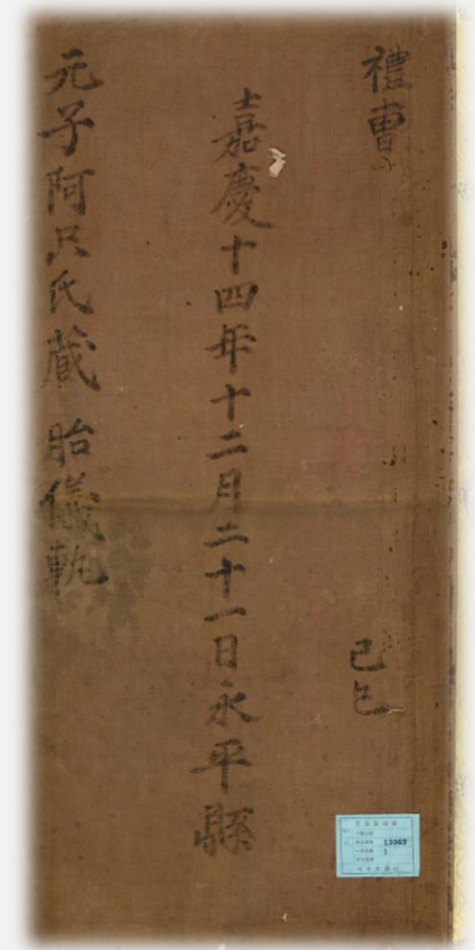
경전의 글귀를 찾아보아도 원자의 책봉이란 말은 분명히 없을 것이다.

(중략) ‘천자에게 맹세한 뒤에야 세자가 된다’고 하였으니,

만약 세자를 봉했다면 나라의 근본을 정한 것이라, 진하함이 옳다.

《태종실록》 2년 4월 19일

원지아지씨  
장태의궤



# 양녕대군 폐위

---

- 세자위 폐위 → 맏아들로 돌아감
- 폐위 이유: 덕과 자질이 부족함

# 조선 초기 왕위 계승

---

- 태종 → 세종 (수선)
- 세종 → 문종 (세종 사후 즉위)
- 문종 → 단종 (문종 사후 즉위)
- 단종 → 세조 (실제로는 쿠데타이나 형식적으로는 수선)
- 세조 → 예종 (수선)

# 서양 중세의 즉위식과 동양의 즉위식의 차이

# 수선을 통한 왕위계승의 특이점

---

- 선왕이 은퇴한다고 하지만 상왕이 되어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두 명의 왕이 동시에 존재
- 서양의 중세 왕위 계승의 관점에서는 주권론적으로 특이한 상황



# 서양 중세의 왕

---

- 자연적 신체와 정치적 신체를 구분
- 왕의 죽음은 왕의 자연적 신체의 죽음을 의미
- 왕의 정치적 신체는 왕의 장례식에 관과 함께 준비되는,  
왕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조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왕의 두 신체 이론’

---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존재
- 중세 시기 왕의 죽음 = 자연적 신체의 죽음
  - 그러나 정치적 신체는 살아 있음
  - 왕의 장례식: effigy를 만들

# 서양 중세의 왕

---

- 새로 즉위하는 왕은 장례식에 참여하여 조상을 보아서는 안 됨
- 장례식 중에는 조상이 왕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두 개의 주권이 한 장소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효과  
→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의 수선은 이상한 왕위계승

# 서양 중세 왕권론에서 볼 때 조선의 수선

---

- 왕이 죽지 않았는데 왕위를 계승함으로써  
두 명의 왕이 왕국에 존재하는 것이 됨
- 두 개의 정치적 신체가 왕국에 존재하는 것이 되는 수선은,  
왕국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위기

# 조선의 관점에서 서양의 왕위 계승

---

-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함
  - 반유교적인 것
  - 질서에 위해가 되는 행위

# 수선에 대한 의문

---

- 왜 조선 초기 왕들은 수선을 통해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왕위를 세자에게 넘겨주고자 한 것일까?

# 마무리

---

- 수선 : 왕이 살아 있을 때 왕위를 다음 왕에게  
넘겨 주는 것

# 다음 시간에는

---

- 또 다른 왕위 계승 방식: 사위



[출처01] Wikipedia

<https://zh.wikipedia.org/wiki/%E8%88%9C#/media/File:%E5%B8%9D%E8%88%9C.png>

[출처02]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kyuview/orgviewer.jsp?nodrm=1&uci=GK13969\\_00IH\\_0001&tid=cen&page=&seoji=%25EC%259B%2590%25EC%259E%2590%25EC%2595%2584%25EA%25B8%25B0%25EC%2594%25A8%25EC%259E%25A5%25ED%2583%259C%25EC%259D%2598%25EA%25B6%25A4%2528%25E5%2585%2583%25E5%25AD%2590%25E9%2598%25BF%25E5%258F%25AA%25E6%25B0%258F%25E8%2597%258F%25E8%2583%258E%25E5%2584%2580%25E8%25BB%258C%2529&chung=%25E5%25A5%258E%2B13969&writedata=1809](http://kyujanggak.snu.ac.kr/kyuview/orgviewer.jsp?nodrm=1&uci=GK13969_00IH_0001&tid=cen&page=&seoji=%25EC%259B%2590%25EC%259E%2590%25EC%2595%2584%25EA%25B8%25B0%25EC%2594%25A8%25EC%259E%25A5%25ED%2583%259C%25EC%259D%2598%25EA%25B6%25A4%2528%25E5%2585%2583%25E5%25AD%2590%25E9%2598%25BF%25E5%258F%25AA%25E6%25B0%258F%25E8%2597%258F%25E8%2583%258E%25E5%2584%2580%25E8%25BB%258C%2529&chung=%25E5%25A5%258E%2B13969&writedata=1809)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K-MOC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정다영

영상  
김록현